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중계 수송업

리기만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상급연구원

두만강개발지역의 한 구성 부분이 되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운영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중계 수송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 전반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정책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 1) 지역 전지역을 외국 기업인들에게 개방해주고 임의의 나라·임의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자기 선택에 따라 기업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 경제 활동 측면에서 나진·선봉지대는 나라의 특별 경제 지역으로서 국가는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 경제에 대한 거시적 조절만을 할 뿐 모든 경제 활동은 투자자와 기업체의 결심에 따라 임의의 형태로 진행되게 된다.
  - 현재 지역 안에 있는 국영기업소들도 외국 기업가와 합영·합작할 수 있고 독립적인 기업 단위로 활동하게 된다.
- 2) 운송업·중계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그와 관련되는 봉사, 산업들의 발전에 우선권을 주며 그를 토대로 하여 지역 전반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 운송업이라 함은 화물뿐 아니라 인원의 운송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존 시설을 이용하여 화물, 인원 운송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 그와 관련되는 항, 철도, 도로 및 관광, 여관업, 시장 등에 대한 투자·경영을 의미한다.

- 중계업이라 함은 완제품 중계뿐 아니라 원료, 반제품을 들여다 지역에서 가공·재포장하여 중계하는 활동, 임가공 등을 적극 장려하며 그와 관련되는 봉사 시설 투자·경영을 의미한다.
- 여기서도 당장 큰 투자없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중계 수송업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계 수송업 대상을 하려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며 적극 실현시키려고 한다.

3) 지역 안의 토지를 임의의 기업에 완전히 떼주어 (임대)기업이 자기 토지와 같이 마음대로 투자하여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나라의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 북한의 관련법과 소개 자료들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무기 장사나 마약 거래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 안에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문은 사실상 없으며 모든 부문에 다 외국 투자를 개방하였다. 예를 들면, 보험, 재정 금융 부문에도 외국 투자를 환영하였다.

4) 지역의 개발을 두만강지역개발,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창구로서 보조를 맞춰 통일 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연안 제국이나 동북아 제국, UNDP를 필두로 국제 기관과 2국간, 다국간 협력을 통해서 실현해나갈 것이다.

-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본으로 하여 균형된 발전을 꾀하고,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미 조인된 협의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설립 및 환경에 관한 양해각서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갈 것이다.

5) 지역 개발에 참가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주변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유리한 대우를 보장하고 지역 당국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려고 한다.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독특한 유리성, 특히 중계 수송의 견지에서서의 유리성

나진·선봉지대의 유리성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유의 유리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나진·선봉지대는 두만강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유의 자연 지리적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

- 우선 팽대한 수송 수요가 있는 이 지역은 가장 유리한 해상·육상 수송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 동북 3성과 몽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는 1 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 이 지역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송 수요는 크게 신장하고 있다.

여기에 1억 2,000만의 인구, 일인당 GNP가 세계 제1위를 자랑하는 일본과 한반도의 7,000만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 지역에서의 수송 수요는 현재도 대단할 뿐 아니라 앞으로 보다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수송 수요에 입각해 볼 때, 현 시점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항구는 이 지역에서는 나진·선봉지역밖에 없으며 그 확장 가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광대한 아시아·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황금의 대륙교」에 위치하는 나진·선봉지역야말로 중계 수송업 발전의 적지이며 가장 유리한 지역인 것이다.

- 나진·선봉지역의 후방에는 막대한 원료와 광대한 시장을 가진 있는 대륙이 있고, 전방에는 자본과 기술,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

- 동시에 150 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과 파괴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가진 곳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관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2) 우수하고 풍부한 노동력 원천을 가지고 있다.

- 11년제 고등무교육을 받은 일반 지식 수준이 높은 노동력

- 근면하고 규율있는 노동력

- 국가로부터 무료 교육, 무상 치료, 주택 보장 등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변함없이 보장받는 노동력

지역 안의 외국 기업에 채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국가(북한)에서 무상 치료, 무료 교육, 주택 보장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계속 보장해줌으로 북한의 경우 노임과 인건비 사이에 차이가 없다. 노임 이외에 그 어떤 추가적인 지출이 거의 없다.

3)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환경 보호와 관련한 투자를 크게 안들이고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

4)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계승성이 보장되는 환경은 제일 주요한 유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지역의 유리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 개발해나감으로써 이러한 유리성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보도록 해나갈 것이다.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계획에 대해 간단히 개괄하려고 한다.

목표: ①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국제 중계 수송 기지

② 국제적인 관광 기지

③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수출 가공 기지

단계:

1단계 : 2000년까지 현존 철도, 도로, 항 등 하부 구조망을 개선, 현대화하여 국제 중계 수송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관광을 발전시켜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

2단계 : 2010년까지 세계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 교류 거점을 마련하는 것

부문별 계획 개요:

#### 1) 중계 수송업

1단계 : ① 나진항을 이용하여 동북아 주요 항들과 정기선을 연결하며 집합 중계 수송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한편, 나진항 화물 처리 능력을 연 1,700만 톤으로 확장

② 청진항을 연 화물 처리 능력 2,000만 톤 수준으로 확장

## ③ 철도, 도로 신설, 확장

## ④ 선봉에 비행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며 우선 직승기의 운행에 의한 항로 개설

2단계 : 나진항의 능력 1억 톤에 이르게 하며 여러 개의 고속도로들을 건설하며 철도를 복선화하는 것

중계 수송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두만강지구 중계수송연합업체를 조직하고 중계 수송과 그와 관련되는 수송망 완비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북한은 이미 시작된 나진-부산 정기 선박 운행을 더 확대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니이가타, 마이즈루항과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 부분에서 기업 활동을 희망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임의의 시기에 토의하여 시급히 실현하려고 한다.

## 2) 관광업

관광 분야에서는 필요한 봉사 시설을 다 갖추기 전이라도 바다유람관광, 칠보산, 백두산, 금강산 관광(지역을 경유) 등을 비롯하여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봉사 시설 건설을 동시에 추진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나진항에 해상 호텔을 놓고 유람선으로 관광객들을 나진항에 받아 지역바다유람을 포함한 지역 관광을 하고 지역 밖의 관광도 하려고 한다. 한편, 중국 동북 지방, 러시아 원동 지방에로의 통과 관광도 널리 진행하려고 한다.

## 3) 공업 지구

지역 안에 10 개의 공업 지구를 예견하고 있다. 경공업도 수송, 관광에 봉사하는 소비재 생산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수출 상품 생산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우선은 임가공, 재포장 등을 널리 진행하면서 모델 공업 단지를 개발·운영해가면서 점차 여러 공업 지구들을 개발해나가려고 한다.

4) 이상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원만히 유통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 재정 금융 시장을 형성하며 재정 금융 봉사를 속히 실현하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 현재 중앙은행지점, 삼각주은행 등 북한 은행 지점들이 있으며 ING, 페레그린 합영은행들이 이미 설립·인가되어 등록되어 있다. 북한은 재정 금융 부분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여 그들이 지역 안에서 재정 금융 봉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개괄한 것은 이미 소개 자료들에서 서술된 구체적인 계획을 위한 실제적인 당면 활동 계획이다. 북한은 이러한 사업들을 일본을 포함한 외국 기업체들, 국제 경제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실현해가려고 한다. 이상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투자하거나 참가하는 기업들은 우선권 대상으로서 개척자의 신분으로 많은 특혜들을 받게 될 것이다.

##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후 현재까지 북한이 진행한 사업들은 주로 지역 개발 정책을 세우고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지역 개발 총계획 작성, 실제 투자 실현 사업 등을 연안국, 동북아 지역 나라들, UNDP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진행하여 왔다.

- 현재까지 29 개의 법과 규정들을 작성하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와 투자 관련 사항들을 법적으로 고착시켰으며 지역에 대한 전반 조사, 국토 개발 총계획을 완성하였다.
- 개발 및 투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중계 수송을 더 원만히 하기 위한 대상 건설

- 나진-원정(권하) 도로 확장
- 나진-학송-남양-회령 전기철도화 완성
- 나진항 1호 부두 개건 확장
- 2호 부두에 40 피트까지의 짐함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직송기 착륙장 건설 완공

### △ 봉사 시설 건설

- 나진호텔 90% 완공
- 선해관광지역 관광 여관 건설 축조
- 이외 세관, 비파 지구 관광 도로 확장 등

여러 대상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외국 투자 상황

현재까지 23 개 나라에서 온 400 대상들과 투자 상담, 지역 개발 협력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70여 차례의 우리 팀이 나가 투자 상담과 개발·협력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의향서, 합의서 등 120 건의 합의들을 맺었으며 약 40 개 대상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대상 금액은 3억 1,200만 달러이며 주요 투자자들은 재일, 재미교포, 영국, 화란, 중국, 홍콩, 타이, 남한 기업들이다.

## 우대 조치와 절차

- 1) 단독, 합영, 합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외국 투자를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한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에는 외국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징발하지 않으며 국외송금담보, 경영비밀에 대한 비공개 담보를 규정하였다.
- 2) 주요한 우대 조치
  - 장려 부문 투자는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 사용 조건 보장, 은행 대부의 우선적 제공
  -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정한 외국 투자 기업은
    - 수출입 물자에 대한 관세
    - 3 년간의 소득세 면제, 그 다음 2년 50% 삭감, 소득 세율은 14%
    - 장려 부문의 기업 소득 세율 10%
    - 입지 조건이 유리한 토지 임대하며 낮은 임대료 적용
    - 세금없이 이윤 송금
  - 토지 이용에서 우대 조치
    - 토지 사용 기간을 50 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토지 이용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된다.
    - 토지 임대 기간 임차인은 임대받은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동산업(재임대, 양도, 판매), 상속 등 형식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 상은 자기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 투자 부문에 대해 사실상의 제한이 없다.

외국인 단독 투자는 출판, 보도, 방송, 체신 분야에서는 제한하였지만, 그외 부분은 전부 허용하며 외국인 단독 투자를 허용안하는 부문에는 합영이나 합작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안정이나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 투자에 예견하는 우대 조치들은 여러 가지이다. 구체적인 것들은 법규들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 3) 절차

- 외국 투자 접수·심의·승인은 지역 당국인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하여 하며, 유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 그러나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에서도 지역 투자 신청 접수·심의·승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중앙에서는 대외경제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 중앙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지역에 모든 통보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며, 원칙은 해당 지역 당국인 지역행정경제위원회에 직접하고 그곳에서 결정해주게 되어 있다(하부 구조 건설 대상 2,000만 원까지, 그외 대상 1,000만 원까지).

이상과 같이 실시 대상은 특이한 부분이지만, 외국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統